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27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업무담당자	임상현	☎ 760-725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내 농장 경영성적,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으로 알려준다

- 필지단위 경영정보 · 제주DA 공공데이터 연계...맞춤형 경영진단 -
- 선도농업인 · 전문가 검증 거쳐 6작물 240농가 현장 컨설팅 제공 -

- 내 농장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, 인공지능(AI)이 답을 찾아준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오는 9월까지 ‘인공지능(AI) 기반 경영성과 분석지원 현장 상담’을 진행한다.
 - 농업인이 제공한 필지 단위 경영정보와 농업디지털플랫폼 ‘제주DA’의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- 농업인이 기록한 생산량과 판매액, 생산비, 농작업 정보에 기상·토양·농업관측 등 제주DA의 34종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다.
 - 지역 평균이나 작물별 일반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, 실제 농사를 짓는 필지의 경영성과와 재배환경을 함께 분석해 농가별·필지별 진단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핵심이다.
- 주요 분석 항목은 생산성과 판매단가, 생산비, 소득 수준, 주요 농작업 등이다. 지역 평균 및 소득 상위 20% 농가와 견줘 해당 농가의 강점과 개선점을 찾아낸다.
 - 생산량은 많지만 생산비가 많이 드는 농가는 비용 구조를, 생산량은 비슷한데 판매단가가 높은 농가는 판매 경쟁력을

확인하는 식이다.

- 수치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재배환경과 경영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.
- 현장 상담은 노지감귤과 월동무, 양배추, 당근, 마늘, 양파 6개 작물 240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진행한다.
- 농가를 직접 찾아가 인공지능 분석결과와 실제 재배상황을 토대로 생산량과 판매가격, 생산비, 소득 등을 종합 진단한다. 필요하면 재배관리와 경영 개선방안도 함께 상담한다.
-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사업에 착수해 경영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분석체계와 상담 지표를 만들었다. 선도농업인 12명과 농업기술 전문가 3명의 검증도 거쳤다.
- 이번 현장 상담을 시작으로 필지 단위 경영정보 축적 → 제주DA 공공데이터 연계 → 인공지능 분석 → 농가 맞춤형 진단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.
- 경영정보가 쌓이면 제주DA의 기상·토양·관측정보와 연계해 더 정교한 필지별 분석이 가능해진다.
- 앞으로는 제주DA에서 “생산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”, “소득을 높이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” 등을 인공지능에 직접 묻고 답을 얻는 서비스로 넓힐 방침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로 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며 “현장의 데이터가 생산성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